
여수시 통신 역사박물관 설립계획에 관한 고찰

신현식* · 김천석**

A study on establish plan for communication history museum of Yeosu city

Hyun-sik Shin* · Chun-suk Kim**

요 약

여수지역에는 옛날부터 통신관련 역사유적과 유물이 봉수대, 솟대, 등대, 거문도 최초 해저케이블 설치 등으로 통신의 역사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통신박물관이나 과학관을 설립하여 통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공헌 할 수 있도록 건립을 추진하고자한다.

ABSTRACT

Yeosu area from the old historical monuments and artifacts related communications signal station, directions display panels, lighthouse, Geomundo the first submarine cable installation, etc. The historical value of the communication is present. Therefore, tourism and culture industries in conjunction with the Communication Museum and Science Center was establish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utilizing the Superintendent to allow residents and people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to promote.

키워드

Communication History, Lighthouse, Communication Museum

1. 서 론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은 국영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른다. 1950년대의 국내 여건은 전쟁의 폐해, 열악한 경제력과 기술력 및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 등에 기인하여 체신부가 그 경영과 정책을 담당하는 국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신사업은 1961년부터 개시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뒷받침이 되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날로 그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통신 기술 발달에 의한 서비스의 확대로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82년 한국 전기통신공사와 데이콤의 출범으로 통신사업의 공영

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1][2]. 특정 서비스의 특정 사업자 독점이라는 공영형태는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의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요구 증대로 전화 및 데이터 통신사업의 한국통신과 데이콤 및 온세통신, 이동통신사업의 SK 텔레콤, 신세기통신과 한국통신프리텔, 한솔 PCS, LG 텔레콤과 같이 제한적 자율형태인 다점체제를 거치며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화에 따른 통신 개방 및 정보화의 물결은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율적인 시장 경쟁 원리에 적극 대응하고자 완전 자율경쟁체제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즉, 1995년부터 민영 2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은 꾸준히 진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shinhs@chonnam.ac.kr)
접수일자 : 2010. 02. 23

**교신저자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kim1000s@chonnam.ac.kr)
심사완료일자 : 2010. 03. 22

행되어 온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1797년 3월 5일 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으로 완전 자율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통신 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87호에 의하여 ‘한국 전기통신공사법’이 폐지되고 1997년 10월 1일에 기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제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민영화 3기에 접어들게 될 예정이다. WTO체제와 IMF한화에 대응하여 정보화 촉진, 산업 구조조정, 통신시장 개방의 기초 속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 같은 통신의 변천과정의 시대의 흐름을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 할 수 있는 통신역사 박물관을 설립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I. 여수시 지역 통신 역사박물관의 필요성

사람의 관광 욕구는 3단계로 발전한다. 그 첫 단계가 풍광 관광이고, 두 번째 단계가 사적관광이며, 세 번째 단계가 민속관광이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는 관광에서 심미와 탐구의 관광으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함께 즐기며 배우고 익히는 교육과 참여의 관광으로 발전한다. 매력 있는 관광지라면 훌륭한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이 결합되어 있고, 특히 이곳에 역사성이 가해지는 문화 유적이 있고,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곳이 가장 이상적이다. 관광이 점차 고차원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겠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 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3].

문화 자원의 산업화도 경제 활동이고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자원의 산업화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서야 이미지, 상징, 양식, 색깔, 소리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의 산업화 역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 문화에 대한 의식이 강한, 문화적 실천 의지가 대단한 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제 지역 행사는 종래의 경관 관람이나 단순한 놀이와 유희 문화로써는 성공할 수 없다. 오동도와 향일

암만으로는 문화 관광으로서의 흡입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확실하고 특별한 주제가 있어야 하고 지역 문화의 실상에 부합하는 테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 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문화관광 권역, 문화 관광 대상별 주제, 관광 기간, 교통 및 숙박 시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장성의 흥길동, 곡성의 심청, 함평의 나비등과 같이 여수시 통신 역사박물관을 설립하여 관광 콘텐츠에 이용하게 하면 좋은 사례가 되겠다.

여수에는 거문도에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이것을 1885년도에 영국군이 거문도와 중국(상해)간에 시설한 국제통신으로서 현대 통신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자원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으므로 2012년 세계박람회와 연계 하여 여수시 통신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2.1 추진배경

여수시에 산재한 근대 통신의 역사산물을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2012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관련도시로서의 여수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신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역사를 바로알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여수지역을 통신역사발전의 메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2.2 우리지역 통신관련 역사

우리지역에는 옛날부터 통신 관련 역사 유적 및 유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봉수대 : 여수시 돌산읍 방답진 봉수대는 남해안 봉수대 중 시발점으로 주요한 통신 수단의 하나로 지리산 봉수대에 연락하여 한성까지 연락되는 통신수단이다[4].

신호연 : 임진왜란 당시 군대간의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등대 : 해안지역의 해상통신수단으로 1905년 남해안에서 최초로 불을 밝힌 거문도 등대, 백야도, 오동도 등대 등 다수를 보유하고 현재도 해상통신의 안전항

해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문도 해저케이블 : 국제간 통신수단으로서 부산 ↔일본간 해저 케이블이 1884년도에 착수되었지만 실제로 활용된 것은 1885년도 거문도 ↔상해에 부설된 것이 최초이며 이후 1904년 1월에 시세보와 거문도, 중국 대련 사이, 같은해 9월 시세보-거문도-철원 반도 사이 4,019Km의 해저전선이 소통되었으며 또한 12월 거문도와 제주도를 연결하고 1912년 3월에는 거문도와 고흥사이에 해저케이블이 시설되는 등 거문도는 국제통신망의 요충지였다.

2.3 통신 역사박물관 설립의 당위성

지역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야 관심을 끌 수 있다. 추진 중인 여수 통신 역사 박물관은 크게 여수 지역 고대, 현대의 통신역사와 더불어 전적-산성-봉수-관광유물관, 왜란과 여순사건을 비롯한 역사관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렇게 구성했다면 그저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문화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수대를 만들어 보거나 벽수를 깎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복을 쳐보고 사물놀이나 봉화사물놀이, 파발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유적 문화 자원은 서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을 한데 묶어 동선을 짧게 하고 주제도 같게 해서 관광객을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충민사-좌수영성(진남관)-고소대-하멜을 하나의 패키지로 할 수 있으며 취적-신산-사곡으로 이어지는 도요 문화 체험코스,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곁들인 여순사건 전적지 순례코스, 산성 종합 관광 코스 통신 역사 박물관 등이다[5].

관광 자원 개발은 지역 문화를 물적 자원의 형태로 바꾸어 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손쉬운 수단이 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지역 문화의 진흥은 지역에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 유산이나 문화 예술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이것이 현실화할 때는 무언가 실질적인 것으로 가공되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인공적 시설 및 이용체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안동 지역에 있는 여러 전통마을 하나로 별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즐기는 유형적 문화물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안동마을

이 그런 경우이다.

여수 문화는 선산문화-거석문화, 신체문화-기층문화, 전적문화-왜란문화로 집약할 수 있고 여기에 통신 역사 박물관을 보탬 수 있다. 여수만의 독특한 통신의 역사적 유물이 많이 존재함으로 우선 여수 문화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사 문화-거석문화는 공룡발자국, 조개더미, 고인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사도, 낭도, 추도 공룡발자국은 인지도도 높고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다. 그러나 뱃길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조개더미나 고인돌도 문화적 가치가 큰 선사 유적이요 거석 문화들이지만 관광객들은 흥미를 두지 않은 경향이다.

신체문화-기층문화는 벽수와 정량과 신당에서 찾을 수 있다.

예전 여수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는 통신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수와 신당을 찾을 수 있다. 벽수는 남정중·화정령을 명문으로 달고 아직도 25기가 남아 있고, 신당도 국동 어항단지 영당을 비롯하여 향호, 오천, 횡간, 용주 등 여수 반도 곳곳에 분포해 있다. 그러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적 문화- 왜란문화는 장생포-〈동동〉, 선소-거북신, 좌수영성-진남관-충민사, 산성-봉화대 등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런데 선소, 진남관, 충민사에만 행정력이 조금 미칠 뿐 좌수영성 복원 문제나 고려가요〈동동〉에 대한 문화적 가치, 산성-봉수대를 묶는 관광코스 개발 등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 문화의 콘텐츠는 선사문화-거석문화, 신체문화-기층문화, 전적문화-왜란문화, 산정봉수대-통신 역사 박물관으로 묶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를 관광 산업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행사는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고 역사적·교육적 의미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행사를 통해서 지역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스스로 그들의 지역적 삶에 배어있는 생활 습속·전통·전래문화·토속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생겨나며 그렇게 되면 지역 문화는 진정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역 문화 행

사는 필요한 것이다. 다만, 행사의 성공 여부에 대한 지레 짐작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진단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확실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도자기를 소재로 한 이천 도자기 축제는 9억 원의 예산 투자를 24일간 개최하여 156억원, 전통탈춤과 안동 문화를 마케팅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8억 2천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10일간 435억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각각 창출시킨 사례에서 보듯 축제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여수 지역에 독특한 통신 역사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2.4 IT 강국으로서 통신 역사 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과거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무형의 자산을 찾고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IT분야에서의 이러한 사례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 무형의 자산으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들을 수 있겠다[6].

꿈의 통신시대를 열고자 시행한 IMT-2000사업자 선정시 전파 즉, 주파수 할당으로 정부가 1조 3000억 원을 2개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시 출연금으로 받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할당해 주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을 정부에 출연한 것이다. IMT-2000사업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도 수십 조원에 이르는 출연금이 책정된 바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전파'야 말로 공기와 더불어 대표적인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인식이 시대 변천과 더불어 바뀌어 가고 있으며, 과거 물질 중심의 유형적 가치관에서 점차 무형의 가치를 좇아 인류 문명이 진전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100년이 넘도록 통신의 발달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지역이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정보화 시대로 도래하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박물관을 건립하여 국민들에게 통신의 역사와 발달사 그리고 미래의 통신에 대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2.5 여수지역에 건립해야 할 필요성

여수지역에는 옛날부터 통신관련 역사 유적과 유물이 봉수대, 정낭, 솟대, 신호연, 등대, 거문도의 최초 해저케이블 설치 등으로 통신의 역사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전지역으로써 난중통신, 신호연, 파발마, 역원 등으로 역사적인 유물과 전적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통신의 중요성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지역민과 국민에게 공헌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앞두고 박람회와 연계하여 통신역사 박물관을 고흥 나로도 위성발사기지와 연결하면 국립 해양 한려공원과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통신 체험장으로 활용하면 국민의 미래 IT와 미디어 산업에 공헌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눈부신 발달로 지역적 특수성이 거의 다 무너지고,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국가간의 간격도 지척과 다름없으니 이러한 논의는 오히려 적폐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에는 버려야 할 인습보다는 계승해야 할 전통이, 고단한 삶의 방편보다는 신나는 생활의 지혜가 더 많이 담겨있다. 아무리 첨단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어 받고 발전시켜 여기에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다른 주장이 없을 것이다.

세계박람회 성공을 앞두고 천혜의 자연 자원 위에 그 동안 여수 사람들이 뿌려놓은 기층문화에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문명이 조화되어 수준 높은 삶의 터밭으로 변모할 것이다. 여수 사람들의 의로운 정신 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여수가 길지요, 복지요, 덕지이기 때문이다. 지리와 산수 등 자연 조건으로 보나 생리적인 측면으로 보나 이만한 적지가 없고 여수 문화, 여수의 정신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여수지역의 특수한 통신의 역사물

봉수대 : 여수시 봉수대는 봉수의 개관, 여수시 봉

수의 특징, 기타 문헌자료를 발굴 조사하여 전시하고 여수시 존재유물 파악 및 주요 현황을 찾아내서 관광 화합 특히 제 5봉수로 시발점인 방답진봉수의 역사성을 검토하고 현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성역화 하여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난중통신 신호연, 기타 역원, 파발마등 개발하여 교육해야 한다[7].



그림 1. 방답진 봉수대

Fig. 1 Signal for the protection Bangdapjin signal station



그림 2. 백야 봉수대

Fig. 2 Signal for the protection Baekya signal station

벽수, 솟대, 정낭 : 벽수골 정낭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앙체인 동시에 경계표, 이정표의 표지통신을 하였으므로 발굴하여 전시하고 여수시의 연등동, 소거문도 등에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여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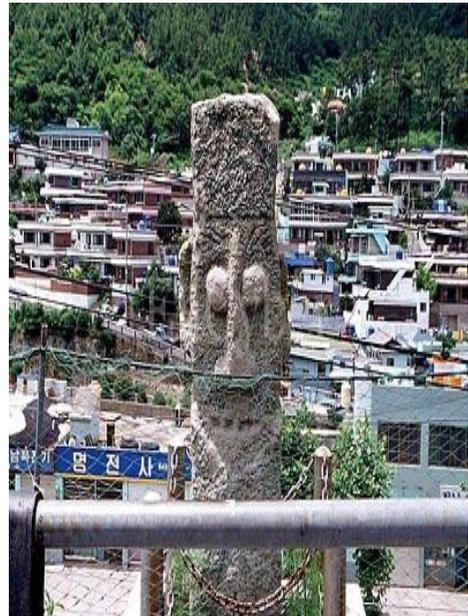


그림 3. 벽수

Fig. 3 directions display panels



그림 4. 솟대

Fig. 4 Wake of the flood using display panels



그림 5. 정낭
Fig. 5 Signal fence

거문도 해저케이블 : 한국 국제통신역사의 시초점으로 개발하여 관광화 및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1885년 거문도↔중국(상해)를 잇는 동축케이블 1회선을 이용하여 통신하였으나 어선작업으로 유실등 존재불투명함으로 찾아내어 보존하고 역사화하여 산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포설방식은 케이블 단순 수중매설 방식을 연구하여 통신방식을 선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 거문도 해저 케이블 육양 지점
Fig. 6 Geomundo yukyung where submarine cable



그림 7. 해저 케이블 표시석
Fig. 7 Submarine cables for the display turns

표 1. 봉수대 현황
Table 1. Tracking signal station

종류	봉수명	
직봉	방답진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봉수 마을 뒤 봉화산 축법 : 석, 토혼축(자연석 및 후) 규모 : 2층 반원뿔형, 높이 7.5m, 하폭 12m 상폭 8m 시대 : 조선
	백야꽃 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봉화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통형, 높이 9.5m, 폭 8m 시대 : 조선
간봉	북봉연 대	위치 : 전남 여수시 군자동 산 100번지 망산 축법 : 석, 토혼축 규모 : 5층 8각형, 높이 4m, 상폭 12.5m, 하폭 14m 시대 : 조선
	안도상 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안도리 상산 축법 : 석축 규모 : 반원뿔형, 높이 2m, 상폭 6m, 하폭 10m
	남면망 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산 199번지 망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통형
	개도봉 화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봉화산 축법 : 석, 토혼축

남도상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상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북서측 높이 2m, 북동측 높이 1m, 동서 폭 5m, 남북 폭 4m
백야도 옥정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옥정산 축법 : 자연바위 시대 : 조선
달암산성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대미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남측 높이 2.5m, 동측높이 1.5m, 동서 폭 11m, 남북폭 8.5m
만홍동봉화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만홍동 산 84-2번지 봉화산 축법 : 석축 규모 : 타원형, 남동측 높이 6m, 북측 높이 3m, 폭 6m 시대 : 조선
전봉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봉계동 월양 마을 뒤 전봉산 축법 : 토·석축(바위에 돌을 쌓아 흙으로 돌음) 규모 : 원형, 높이 5m, 폭 13m
묘도봉화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묘도동 봉화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높이 3m, 폭 13m
사림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흥리 냉천마을 사림산 축법 : 석축 규모 : 원형, 높이 5m, 폭 9m 시대 : 조선
진례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삼암동 도솔암 뒤편 진례산 축법 : 석축 시대 : 조선
초도상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상산봉 축법 : 석축 시대 : 조선
손죽도봉화산봉수	위치 :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봉화산 축법 : 석축 시대 : 조선
여동리봉수터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장도) 시대 : 조선

IV. 국내·외 통신박물관조사

4.1 국내 통신관련 박물관

4.1.1 한국통신박물관

1993년에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용산전화국 내에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는 약 1,670㎡이다.

한국통신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전기 통신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통신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현대 초고속으로 첨단화 되어 가는 통신문화의 수용을 미래 지향적으로 대처하고 후손들에게 그 변천사를 남겨 연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8].

제1·2전시관과 특별전시관이 있으며 1,500여 점의 통신사료와 5,000여 점의 관련자료가 전시 및 보관되어 있다. 통신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영상화 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벨전화기, 우리나라에 근대통신 장비가 도입되기 전에 사용됐던 ‘북’신호(연)‘봉수’, 고종황제가 사용한 전화기 복제품, 12개국 전화기 120점 등이 있다.

4.1.2 KT정보통신박물관 (사이버박물관)

KT는 2005년 6월에 인터넷상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역사와 통신서비스의 변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KT정보통신박물관’을 개관했다.

KT정보통신박물관은 정보통신 관련지식을 롤-플레이팅 게임을 통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가상체험관’, 교사들에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을 제공하는 ‘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체험관에 입장하면 게임속 주인공이 돼 가상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존했던 인물이나 사건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통신의 기술과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게임에 접속한 다른 관람객들과의 대화도 가능하다.

학습관은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 학습게시판, 진도체크 기능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정보통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특정 사실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탈피해 한편의 전래

동화를 보는 듯이 구성했다. 또한 사이버 정보통신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역사와 통신서비스의 변천을 한 눈에 조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한 사진정보와 동영상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역사관과 전시관도 마련해놓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와 'KT 20년사' 전문을 제공하며, 정보통신용어사전, 논문자료, 신문스크랩 등 정보통신에 관한 다양한 기록물들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관도 갖추고 있다[9].

4.1.3 전기통신박물관

전기통신박물관은 전기통신 관련 역사 사료를 한곳에 모아 전기통신의 지나온 발자취를 조명하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대전시 남대전전화국에 설립되어, 학생들에게 통신에 대한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1930년대 자석식 전화기에서부터 70년대 초에 나온 최신 1호 자석식 전화기 및 휴대용, 자동식 전화기가 전시돼 있으며, 그밖에 사료 600여건도 보유하고 있다.

4.2 국의 통신관련 박물관

4.2.1 The Frank H. Woods Telephone Pioneer Museum (미국)

The Frank H. Woods Telephone Pioneer Museum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Independent Telephone Pioneers Association (ITPA)의 승인을 얻어 Aliant Communications의 기금으로 1996년 미국 네브라스카에 설립되었다. 주요 전시물로는 cordboard room, strowger telephone set, candlestick phone 등이 있다.

4.2.2 Museum of Independent Telephony (미국)

이 박물관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 전역에 전화 서비스를 위해 존재했던 6000여개의 독립 전화회사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1973에 미국 캔사스에 설립되었다.

4.2.3 Roseville Telephone Museum (미국)

1994년 4500 평방 피트 면적에 4개의 전시관이 설립되어 귀중한 골동품 전화기들과 미국 전화 역사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 또한 1876년 Alexander Graham

Bell이 설계한 진품 전화기, 초창기 switchboard와 수많은 신기한 전화기들도 전시하고 있다. 특히 1914년 Roseville Company에서 사용되었던 고압자석식 교환대를 통해 직접 호(call)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4.2.4 Telephone Historical Centre (캐나다)

Telephone Historical Centre는 캐나다 Edmonton 지역의 전화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ED TEL 은퇴자들이 1987년에 설립한 전화 박물관이다. 이 지역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오래된 전화기기의 전시와 더불어 말하는 로봇의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체험할 수 있다.

4.2.5 Museum für Kommunikation Berlin (독일)

1872년 세계 최초로 우편 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 3월에 통신 박물관으로 개명하였다. 라디오, TV, 통신기기, 통신의 역사 및 미래에 대한 전시뿐만 아니라 3대의 로봇이 관람객을 환영하고, 빌딩을 소개하며, 여러 가지 게임을 유도하여 통신에 대한 체험을 고도화 시킨다.

4.2.6 The OTE Museum of Telecommunications (그리스)

The OTE Museum of Telecommunications은 1990년에 1,000 m² 규모로그리스 아테네에 세워졌다. 관람자들은 전시관, 프로젝트관, 도서관, 실험실 등을 통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통신 기술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소중한 통신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4.2.7 Tei-Park(Communications museum)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유일의 정보 통신 박물관으로 우편 서비스, 정보통신, 방송 3개 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통신 전 분야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흥미로운 학습 체험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V.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2012년 세계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역시 여수 문화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면서 통신역사 박물관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의 발달과정과 체험학습을 통하여 통신의 중요성과 IT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즐기고 배우며 익히는 교육과 참여의 관광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다. 매력 있는 관광지라면 훌륭한 자연 경관과 문화 경관이 결합되어 있고, 특히 이곳에 통신의 역사성이 가해지는 문화유적이 있고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곳일 것이다. 관광이 점차 고차원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겠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 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임진왜란의 유적지와 하멜의 표류기 고흥 위성 우주발사기지등을 연결시켜 독특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관광은 종래의 경관 관람이나 단순한 놀이와 유희 문화로써는 성공할 수 없다. 오동도와 향일암만으로는 문화 관광으로서의 흡입력이 약하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확실하고 특별한 주제가 있어야 하고 지역 문화의 실상에 부합하는 테마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 역사 박물관을 관람하는 코스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여수산업단지, 광양제철단지, 순천만의 습지와 자연환경을 통한 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은 이제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것, 활동하는 것, 배우는 것, 건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는 것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면서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 정도면 더욱 관심이 적다. 따라서 문화 관광상품의 집산화와 연계화를 도모하여 강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가장 위대한 대안이 박물관이다. 여수 지역 박물관은 옛날부터 유물로 내려온 통신 분야의 역사와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에서 최고의 통신분야와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를 같이 묶어서 역사와 문화를 담아야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은 크게 문화유물전시관, 전적-산성-봉수-해양유물관, 왜란과 여순사건을 비롯한 역사관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렇게 구성했다면 그저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의 기능에서 탈피하여 통신 문화 체험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VI. 결 론

오늘날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나 전통 문화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화훼·곤충·식물 등의 자연 자원뿐만 아니라 연극·인형극·영화 등과 같은 현대적 문화 소재를 볼 걸이·즐길 거리·먹 거리 등으로 가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관람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프랑스 아비뇽 연극제, 칸느 영화제, 에딘버러 축제, 앙굴렘 만화 축제 등은 독특한 지역 축제로 탄생했으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세계 속의 문화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는 군악대 축제, 재즈 축제, 영화 축제, 민속 축제, 어린이 축제, 책 축제, 과학 축제 등 온갖 종류의 축제가 1년 내내 벌어지고 있어 축제의 왕국이라는 닉네임도 붙었다. 이처럼 지역 행사는 지역을 세계화하고 더불어 지역을 살리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천 도자기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등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 행사가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물론 외국인들의 방문도 줄을 이었다.

여수의 행사에는 향일암 일출제, 영취산 진달래행사, 검은모래 눈뜨는날, 참장어 요리행사, 남해안 생선 요리 행사, 거문도 풍어제, 진남제, 고막행사, 흥합행사 등이 있다. 이러한 행사가 얼마나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문화 행사만 보자면 진남제와 거문도 풍어제 뿐으로 아직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행사는 미미한 편이다. 그러므로 여수지역의 새로운 통신역사 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전국 최초의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며 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휴대폰 소비자 35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통신의 발전은 전과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전과환경의 변화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확보, 배분 등 국민에게 홍보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김준옥, 여수 아오동동다리, 민속원, pp.150-160, 2004.
- [2] 신현식, 정보통신개론, 광문각, pp.55-60, 2005.
- [3] 신현식, 전파 통신관계법, 광문각, pp.201-203, 2002.
- [4] 신현식, 전파통신운용, 교육과학기술부, pp.35-37, 2003.
- [5] 여수시, 여수통계연보, 여수시청, pp.5-15, 2008.
- [6] 여수시 정보통신과, 통신역사박물관 건립자료, 여수시, pp.7-8, 2008.
- [7] 여수시 정보통신과, 거문도 해저 통신보고서, pp.5-6, 2008.
- [8] 신현식,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파법 체제개편에 관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 4, No. 1 pp.1-6, 2008.
- [9] 강원도, DMZ박물관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pp.55-57, 2009.

저자 소개



신현식(Hyun-sik Shin)

1969년 2월 광운대학교 무선통신 공학과 졸업(공학사)
 1980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1995년 8월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현재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장

(사)한국해양정보통신학 회장, 명예회장

(사)한국전자통신학회 회장

※ 주 관심분야 : 정보통신, 통신정책, 데이터통신



김천석(Chun-suk Kim)

1980년 9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사)

1982년 9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1998년 경남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82년~2006년 2월 : 여수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2006년 3월~현재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 주 관심분야 : 수중통신, 정보통신분야